

‘반값 연봉’ 광주 현대차 완성차 공장설립 진 걸음

현대차 실무진, 광주산단 방문
산단조성 완공, 최대한 앞당겨
직간접 고용효과 1만2천명 기대

이른바 ‘반값 연봉’을 내세운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광주시의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이 속도를 낸다.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현대자동차 실사단이 현지를 찾고 광주시 협상단도 현대차 본사를 방문해 본격적인 협의에 나섰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실무자 9명은 이날 오전 광주 빛그린산단을 찾아 현지 실사작업을 벌였다.

이들은 산단 조성 현황에 대한 광주시의 설명을 듣고 산단을 둘러봤다.

실사단은 주로 산단 부지 중 공장이 들어서기에 적합한 장소를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장 부지와 연결된 도로계획을 살피고 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했다.

또 상·하수도를 비롯한 기본 인프라의 진척 단계 등 언제쯤 산단 조성이 마무리 될 것인지에 관심을 나타냈다.



4일 오전 광주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서 개발업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가 현장 실사를 나온 현대자동차 실무진 9명에게 완성차 공장 부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4일 오전 광주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서 현장 실사를 나온 현대자동차 실무진들이 개발업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에게 산단 개발 현황과 완성차 공장 부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는 현재 65% 수준인 산단 조성을 최대한 앞당겨 공장 설립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광주시 광산구 삼거동과 전남 함평군 월야면에 걸쳐 있는 빛그린산단은 전체 면적 407만1천㎡ 규모로 조성 중이다.

1단계 264만4천㎡ 가운데 현재 공정률은 65%다.

광주시는 하루라도 빨리 완성차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내년 12월 예정인 완공 기간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실제 착공 가능시기에 대한 실사단 질문에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가

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중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광주시 협상단도 이날 오후 현대차 본사를 공식 방문해 투자 규모, 생산 차종과 규모, 위탁 기간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광주시는 투자협약 체결, 법리 검토, 투자 기간, 기업 모집, 합작법인 설립, 공장 착공 등을 위한 협상을 본격화한다.

광주시는 이번 협상의 핵심이 위탁 차종과 규모, 기간 등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대차가 ‘경제성을 갖춘 신규 차종’의

생산을 광주에 들어설 공장에 위탁하고 연구개발·판매·사후서비스(AS) 등을 모두 맡기 때문이다.

현대차의 위탁 차종이 경쟁력을 갖추면 광주공장의 역할이 커지고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 실사단과 광주시 협상단이 서로 교차 방문을 하면서 현대차의 투자 의향서 제출로 시작된 광주 완성차 공장 설립이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대차의 참여 규모가 과연 얼마나 될지, 노조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지 등 변수는 여전하다.

2014년부터 추진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포함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사업 실현에 필수적인 완성차 업체의 투자 유치에 총력을 썼으며 마침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다.

투자가 실현되면 광주시는 오는 2020~2021년께 현재 완성차 정규직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 절반 수준인 약 4천만원으로 현대차의 차량을 위탁 생산하게 된다.

연간 생산 규모는 약 10만대로 직간접 고용 효과가 1만2천여 명에 달할 것이라고 광주시는 예측한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달 31일 광주시와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합작 방식 독립법인에 지분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사업 참여 의향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대차 실무진의 현장 실사를 계기로 여러 가지 투자 조건에 대한 협상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이른 시일 안에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김남중 기자 5555knj@metroseoul.co.kr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보성군 ‘녹차미인보성쌀’ 11년 연속 선정

보성군이 전남도가 주관하고 한국식품연구원 등 6개 전문기관에서 평가한 ‘2018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녹차미인보성쌀’이 11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4일 군에 따르면 ‘녹차미인보성쌀’은 보성강 맑은물과 비옥한 토양에서 자란 호평벼 품종으로 일반 쌀에 비해 맛이 월등하여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으며, 품종 혼입률, 전문패널 식미평가, 서류 및 현장평가 등에서 고른 점수를 받았다.

군은 지난 2006년부터 고품질 쌀 재배 단지를 조성하여 종자선정부터 육묘·본답관리, 수확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품질관리와 농가 기술교육 등을 통해 엄격하게 지도·관리·생산하고 있다.

또한, 평당 주수도 70~75주를 심는 일

반 쌀농사와는 달리 60주를 기본으로 심어 쌀의 품질을 높이고, 파종도 7~8kg인 관행 농법을 벗어나 대폭 줄여 4kg으로 제한하는 등 고품질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있다.

특히, 쌀 단백질 함량이 6.5% 이하로 6~8%인 일반쌀보다 낮고, 완전미율도 95% 이상이며, 적기수확 및 최신식 저온저장·건조·도정으로 연중 햅쌀의 맛을 유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녹차미인보성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며, “농산물우수인증(GAP)의 지속적인 관리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농산물 생산과 농가 안정적 소득보장 등 보성의 청정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남 보성=문병한 기자 m852718@

전남 작은 섬마을에 ‘드론 택배’ 뜬다

드론 자율 배송점 시범사업 착수
재난·재해 대비 이동 배송점 개발

전남도가 여객선 정기항로가 없는 유인도서에서 드론(무인항공기) 택배 배송이 가능한 기반 조성을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전남도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주소만 입력하면 드론이 알아서 배달해주는 ‘드론 자율 배송점’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드론 자율 배송점’은 우편이나 택배, 각종 배달을 할 때 도로명주소만 입력하면 드론이 스스로 비행하면서 위치를 찾고 사용자가 요구한 지점에 자동으로 배달하는 시스템으로 자동차 자율주행과 비슷한 개념이다.

전남도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창출 선도 지자체 공모’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한다.

고흥 득량도와 진지도 등 정기항로가 없는 유인도서 2곳에 대해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섬이 많은 전남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우정사업본부 드론이 전남 고흥 선착장에서 소포 1개, 일반우편물 25개를 싣고 득량도 마을회관으로 배송하기 위해 이륙하고 있다. /뉴스

물류 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산간 지역의 보편적 우편·택배 서비스 실현, 재난이나 폭설 등으로 인한 재해지역에 긴급구호 물품 배달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배송점은 행안부와 전남도, 학계, 드론 전문가 등의 협조를 받아 옥상이 아닌 지붕 구조로 돼 있거나, 마당 등의 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의 경우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집전형 배송점을 개발한다.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를 대비해 이동이 가능한 배송점도 개발한다.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전남도내 279개

유인도 중 현재 정기항로가 없는 86개(31%) 도서로 확산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2019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안전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정선 전남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자율 드론 배송점 개발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필수적인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주소정보의 가치와 활용을 향상시켜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5555knj@metroseoul.co.kr

완도 전복, 판촉행사로 1700t 판매 ‘끝 모를 추락’ 양식 어민 한숨 돌려

국내 경기침체 등 소비둔화로 전복 산지가격이 크게 하락하며 생산원가마저 위협받았던 전남 완도 전복 양식 어업인들이 한숨을 돌렸다.

전복 소비촉진을 위해 완도군 공무원들이 팔을 걷고 나서 판촉 활동을 벌인 결과다. 출하 시기가 집중되고 소비 특수(설, 추석 등)마저 끊겨 전복 양식 어업인에게 가장 힘든 시기인 5월 한 달간 판촉행사로 총 1700여t을 판매했다.

이번 행사로 전복 가격하락을 막아 값이 다시 오르는 등 완도 전복산업이 다시 활력을 찾고 있다고 군은 자평했다.

완도 전복은 지난 2월 이후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유통업체들이 보관하던 전복을 다시 가두리 양식장으로 보내는 최악의 일까지 발생했다.

완도군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지

난 4월 24일 전복산업 관련 단체, 어업인과 함께 간담회를 하고 한시적으로 할인 행사를 추진했다.

할인 행사에 완도군 전 공직자와 관련 산업 단체 회원이 동참해 전국 지자체와 대형마트 향우회, 대형 산단 등을 찾아다니면서 판촉 활동을 펼쳤다.

할인 판촉 행사에서 선물용 큰 전복의 경우 70% 이상 소진되는 등 전복 양식 가두리에 적체된 상당량의 물량이 출하됐다.

한국전복산업연합회 완도군협회 양관석(64) 회장은 4일 “완도군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판촉 활동을 벌여 우려했던 가격 폭락 등 고비는 일단 넘겼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박현식 완도군수 권한대행은 “전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완도=김남중 기자

보성군 학교급식소 32곳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보성군은 지난 5월 28일부터 4일간 관내 학교급식소를 32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음식물 관리 소홀 등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제공을 위해서다.

군은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위해 소

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2개조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집중점검을 추진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위생관리 실태 ▲식품 원재료 적정성 및 보관 관리상태 ▲종사자 개인위생 수칙 준수 ▲기구·용기 세척·소독관리 ▲식품용수의 수질관리 ▲보존식 보관여부 등이다. /전남 보성=문병한 기자



보성군은 학교급식소 식중독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했다.